

인동차(忍冬茶) - 청산도(靑山道) - 조그만 사랑 노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6년 수능]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킨¹⁾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²⁾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퍼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³⁾.

 산중에 책력(冊曆)⁴⁾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1) 삼긴 :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2) 덩그럭 불 :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3) 잠착하다 :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4) 책력 : 달력.

(나)
 ㉠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 **둥 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꾸기…….

 ㉢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 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띄어 올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발 푸른 언덕을, 뚝뚝 달려도 와 줄 ㉤ **볼이 고운 나의 사람.**

 ㉥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

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12%]

I.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④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와사등-올타리 밖

[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06월 평가원]

[가]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긴-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담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 천연(天然)히

올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올타리 밖>

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새 1-어머니의 그릇-노래와 이야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109월 평가원]

[가]

1

㉠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적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높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운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낱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 [A]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 [B]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8%]

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발열(發熱) - 거문고 - 대설주의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06월 평가원]

(가)

[A]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B]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¹⁾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²⁾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C]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 정지용, <발열(發熱)>

1) 박나비 :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2) 주사(朱砂) :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¹⁾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지다

[D]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김영랑, <거문고>

1) 기린 :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E]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개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 최승호, <대설주의보>

[19%]

4.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바다와 나비-북어(北魚)-고향 앞에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506월 평가원]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나]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 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썩의 ㉡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 **눈**,
북어들의 뺨뺨한 ㉣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북어(北魚)>

[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꿰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이를 휩쓸어간다.

예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30%]

5.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일상적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③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인동차(정지용) - 청산도(박두진) - 조그만 사랑 노래(황동규)

- 1) ㉠ ㉡ ㉢ [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가)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하이얀 삼동'의 겨울이다. 이러한 시대 현실 속에서 화자는 '덩그럭 볼'의 붉은 이미지와 '무순'의 파란 이미지로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암울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검은 밤과 이에 대비되는 밝고 푸른 산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다)는 과거와 단절된 화자의 상황을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는 돌의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처를 깨어진 금을 통해서, 그리고 불안한 화자의 내면을 떠다니는 눈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세 작품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④ (나)의 특징이다. ③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 ③ ㉢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가]는 '늘어선 고층(高層)'을 창백한 묘석(墓石)으로,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직유법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에서 직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는 1연의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를 마지막 연(5연)의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에서 반복하여 수미상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에는 수미상관의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가]와 [나] 모두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서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의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 나'를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대상인 '와사등'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 '등불', '야경'과 '어둠' 등 밝음과 어둠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되었으나, 이 시는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나]는 어둠과 밝음을 대조시키지 않았으며,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는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 3) ㉠ ⑤ ㉢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가]는 '새'와 '포수'를 대비하여 자연의 순수를 파괴하는 문명의 폭력성, 혹은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등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삶에 대한 정성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지 않은 채 시를 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가 지향하는 상황이 '자연'이나 '대상의 본질'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환상 세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더욱이 [나]에는 환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새'가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고 한 이면에는 이와 대비되는 '포수' (인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 의식은 '포수'가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라는 표현에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② 어머니가 '그릇'을 '그릇'이라고 부르는 일상의 사건에서 발상을 얻고 있다. ③ [나]는 연 구분을 하지 않은 20행 짜리 단연시인데 반해 [가]는 숫자를 이용하여 뚜렷이 연 구분을 하고 있다. ④ [가]는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반면, [나]는 어머니와 대비되는 '나'가 뚜렷이 드러난다.
- 4) ㉠ ⑤ ㉢ [시적 상황에 대한 파악] [D]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문 아주 닫고 벽에 기댄 채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기린'의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닫힌 공간은 바로 화자 스스로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는 '산짐승'들로 하여금 길 잃고 굶주리게 하며,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려는 눈보라가

내려치는 상황이다. '굴뚝새'마저 몸을 감추게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립의 공간인 것이다. ㉠ ① [D]는 화자가 선택한 고립된 공간이며, 동시에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E]의 공간은 존재들을 억압하는 외부적 공간이다. ② [D]와 [E]의 상황 모두 화자를 힘들게 하고,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③ [D]에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내'는 '기린'이라는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E]에서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관찰과 묘사만 드러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대상인 '기린'과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E]에서 화자는 대상인 '눈보라'와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다와 나비(김기림) - 북어(최승호) - 고향 앞에서(오장환)

- 5) ㉠ ⑤ ㉢ [작품의 공통점 이해] (가)에서는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와 같이 시각 및 촉각적 심상, (나)에서는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와 같이 청각적 심상, (다)에서는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와 같이 청각 및 후각적 심상을 활용한 표현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상의 마무리는 각 작품에서 묘한 시적 여운을 남기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공통점으로는 ⑤가 적절하다. ㉠ ① (나)와는 거리가 멀다 ('꺾어져 있었다, 딱딱했다'). ② (가)와 (다)에는 일상적 삶을 반성하는 면모가 드러나 있지 않다.